



시애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주보

11700 1st Ave. N.E. Seattle, WA 98125 | 사무실 : 206-362-2278 | 연령회 : 206-334-7050
 www.standrewkim.us | Email: standrewkim.us@gmail.com | 발행인 : 김다울 클레멘스
 주임신부: 김다울 클레멘스 | 보좌신부: 박윤기 F. 하비에르 | 이 크리스토폴 수녀 | 박 하비에르 수녀



주님의 빛을 따라

주님, 당신의 빛이 우리 안에 머물면
 우리의 작은 걸음도 복음이 됩니다.

칼이 보습이 되고 창이 낫이 되듯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는 그 자리에서,
 당신의 나라는 조용히 시작됩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의 아름다운 발처럼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한 걸음 내딛게 하소서.
 말보다 삶으로 당신을 전하게 하시고,
 세상 끝 날까지 함께 계시는 당신 안에서 걷게 하소서.

ACA(Annual Catholic Appeal) 2026

ACA는 시애틀 교구장 대주교님의 뜻에 따라 교구에 직접 내는 봉헌금으로 교무금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모든 신자들이 참여해야 합니다.

- 교구에서 각 가정으로 우편으로 발송한 인쇄된 원본 ACA 봉투를 사용하십시오.
(기부자의 이름, 기증자의 ACA ID 번호, 주소가 미리 인쇄되어 있음)
- 현금보다는 수표(Check) 또는 신용카드(Credit Card)로 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리 인쇄된 원본 봉투를 분실하여 일반 ACA봉투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나 기부방법을 봉투에 작성할 때, 온라인으로 기부 하시려 할 때 사무실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대교구에서 발행할 연말 세금 정산 서한(Tax Report)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ACA 봉투에 모든 정보를 작성한 후 교구로 직접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신속합니다.

우리 본당 목표 금액 - \$ 57,774

10/01/2026 기준

목표 금액 - \$ 57,774

현재 기부 금액 - \$30,985

현재 참가 인원 - 75명



본당 복음화 일치를 위한 기도

매일 저녁 9시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을 바치고

✦ 교회의 어머니이신 복되신 성모 마리아님

● 시애틀 대교구와 저희 본당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한국의 모든 순교 성인들이여

● 시애틀 대교구와 저희 본당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성가 안내

입당 성가 : 416 예물 준비 성가 : 220, 511 성체 성가 : 179, 159 파견 성가 : 238

연중 제28주일(10/11)	토요 저녁(7:00)	주일 아침(8:00)	교중(10:00)	청소년(11:30)	청년(5:30)	미사 참례자 합계
미사 참례자	48명	54명	227명	130명	61명	520명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2)

관상과 활동의 조화를 이룬 개혁가

‘맨발의 가르멜회’ 창립자이자 교회 박사, 기도 신학의 권위자

그러나 개혁의 길은 순탄하지 않았다. 기존의 완화된 규칙을 따르던 가르멜회와의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한때 활동에 큰 제약을 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영적 지도자였던 도밍고 바네스 신부를 비롯하여 당시 가톨릭 개혁에 힘쓰던 여러 인물들의 도움을 받아 개혁을 계속해 나갔다. 결국 맨발의 가르멜회는 기존 가르멜회 안에서 독자적인 개혁 공동체로 자리 잡게 되었다.

데레사는 하느님과 함께하는 참된 고독을 얻기 위해서는 인간이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가르쳤다. 인간의 영혼 깊은 곳에서 하느님을 만나고 그분의 목소리를 듣는 여정을 그는 다양한 단계의 기도로 설명하였다. ‘묵상의 기도’, ‘고요의 기도’, ‘합일의 기도’로 이어지는 이러한 가르침은 인간이 외적인 풍요와 분주함에 사로잡혀 하느님을 잊지 않도록 내면의 중심으로 돌아갈 것을 요청한다.

이러한 까닭에 데레사는 스페인 신비주의 문학을 대표하는 인물로도 평가받는다. 그의 글은 당시 사람들에게 깊은 신앙심과 올바른 삶의 방향을 일깨우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바쁜 활동 중에도 데레사는 많은 편지와 저술을 남겼다. 『완덕의 길』과 『영혼의 성』이 대표적이며, 특히 『영혼의 성』은 그의 영성을 집약한 대표작이자 세계 종교 문학의 걸작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는다.

이 밖에도 자신의 영혼 상태와 신비적 체험을 기록한 자서전적 저술들이 있으며, 400여 통에 이르는 편지를 모은 서간집과 민요적 성가의 형식을 지닌 시들도 전해진다.

그의 문장은 정감 어린 필치와 명쾌한 표현으로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다. 복잡하고 신비스러운 영혼의 체험을 구체적이고 친근한 언어로 풀어내어, 인간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여러 영적 현상들을 섬세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였다.

오늘날까지 신비 신학의 중요한 고전으로 존중받는 그의 글은 한마디로 ‘초자연적 체험과 그 열매에 대한 깊은 성찰’이라고 할 수 있다. 데레사는 그리스도교 전통의 여러 신비가들이 전해 온 가르침을 자신의 체험에 비추어 설명하면서, 기도의 길이 인간을 어떻게 변화시



키고 하느님과 더욱 깊은 일치로 이끄는지를 보여 주었다.

아빌라의 데레사는 주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했기에 그리스도의 고통에도 깊이 동참하기를 원했다. 그는 하느님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자 하였으며, 자신의 삶 전체를 사랑의 봉헌으로 바쳤다. 그의 영성을 잘 보여 주는 유명한 기도는 이렇게 전해진다.

“아무것도 너를 흔들지 못하게 하라.

아무것도 너를 두렵게 하지 못하게 하라.

모든 것은 지나가지만 하느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인내는 모든 것을 얻는다.

하느님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다.

하느님만으로 충분하다.”

1582년, 67세를 맞던 해에 데레사는 “주님, 저는 성교회의 딸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그는 1614년 시복되었고 1622년 시성되었으며, 훗날 교회 박사로 선포되었다.

관상 안에서 하느님을 깊이 만나고, 그 만남을 교회와 공동체를 위한 구체적인 활동으로 옮긴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 그의 삶은 참된 기도가 세상으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라 사랑을 향한 더욱 깊은 투신이며, 하느님과의 일치가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힘을 오늘날에도 보여 주고 있다.

공지 사항

1 본당 설립 50주년 기념초

본당 설립 50주년 기념초를 못 받으신 분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주임 신부님 영명축일

오는 11/ 23(월)은 본당 김다을 클레멘스 주임신부님의 영명축일입니다. 신부님의 영육 간의 건강과 영적 여정을 위해 '우리 본당 공동체가 하나 되어' 영적·물질 예물을 봉헌하고자 합니다. 성당 로비에 봉헌함이 마련되어 있으니, 신자분들께서는 준비된 용지와 봉투에 정성을 담아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 봉헌 시기 : 10/17(토)~11/15(주일)까지
- 봉헌 일 : 11/22(주일) 10시 교중미사 중
- *용지와 봉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3 베드로회 모임

- 일시 : 10/18(주일) 오전 8시 미사 후
- 장소 : 110호 교리실

4 구역장 회의/회식

- 일시 : 10/18(주일) 오전 11:30
 - 장소 : 별도 공지
- 모든 구역장님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5 Special Collection(특별 헌금)

- 일시 : 10/17(토) - 10/18(주일)
- 시애틀 대학교에서 World Mission Sunday (전교 주일) 특별 헌금을 실시합니다. 정성 어린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6 음식봉사

- A ● 음식 봉사 : 청년회 WYD 준비팀
 - 일시 : 10/18(주일)
 - 메뉴 : 수육+겉절이 / 아이스 아메리카노
- B ● 음식 봉사 : MLT/ Seattle/ Somerset
 - 일시 : 10/25(주일)
 - 메뉴 : 수제비

7 위령 성월 묘지 미사

- 일시 : 11/ 2(월) 오후 1시
- 장소 : 홀리루드 묘지 소성당

8 미사 반주자 모집

- 하느님을 찬미하며 미사 전례를 풍요롭게 채워 주실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봉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실 교우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 모집 부문 : 평일 미사, 토요 저녁 주일 미사 반주자
 - 문의 : 반주단장 김로사 425.442.7255

9 연령별 단체 연합 모임

“노고와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하늘뜨락제를 위해 열정과 사랑으로 수고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연령별 단체가 함께 모여 친교를 나누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기쁨과 감사의 시간을 함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10/24(토) 오후 5:00
 - 장소 : 성당 친교실
 - 대상 : 나자렛회, 대건회, 임마누엘회, 베드로회 회원.
- 원활하고 풍성한 음식 준비를 위해 정확한 인원 파악이 필요합니다.
- RSVP 기한 : 10/20까지
 - 문의 및 신청 : 각 회장단 또는 사목회 총무 206-235-8886

10 성탄 한마음 잔치 공연 신청

- 신청 기한 : 11/15(주일)까지
- 신청 접수 : 공연에 참가할 개인 및 단체는 사무실 앞에 준비된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신자분들의 참여와 성원으로 풍성한 잔치가 되었으면 합니다.
- 문의 : WYD 준비위원장 이선재 마르티노 standrewkimworldyouthday@gmail.com 425-786-4082

입당송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당신 얼굴을 저희에게 비추시고 자비를 베푸소서. 당신의 길을 세상이 알고, 당신의 구원을 만민이 알게 하소서.

제1독서 이사 2,1-5

<모든 민족들이 주님의 산으로 밀려들리라.>

화답송

◎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제2독서 로마 10,9-18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파견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 환호송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알렐루야.

복음 마태 28,16-20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라.>

영성체송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모든 민족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우 리 들 의 정 성

[교무금] 김한웅 이승우 이지연 안창남 광영준 이석돈 이진순 이두순 지유선 한천혜 전윤원 송재민 이천우 박원규 이경태 이순옥 노찬규 이계숙 김창문 김병민 이종성 박철균 정순도 이태경 전창두 김태자 김기운 이진만 심진수 홍소영 박수익 안신자 신경철 양대석 신길하 조승희 장승연 박애령 호영규 조항영 이운선 이장원 이상철 Kyung Paik

[교무금 Push Pay] 이사라 조성욱 유승일 최영석 노유정 이로서 송승혜 맹성호 김명준 이진열 김중대 백승진 박정임 이제용 이서영 안마슈 손윤자

[감사헌금] 탁희선 정순도 이명희 [꽃 봉헌] 민들레

주일 헌금	교무금	교무금 PUSH PAY	WYD 지원금	메인 계좌 차입금 상환	감사 헌금	꽃 봉헌
\$6,034.00	\$7,135.00	\$2,918.80	\$4,600.00	\$100.00	\$160.00	\$100.00

교우 비즈니스 광고

Styles Law/골든 부동산(대표)	CPA, Cho & Assoc. LLC	박영진 부동산	엠마 스킨 케어
변호사 -Jeremiah Styles 케이스 매니저-서역원 마르띠노 206-335-3090	세금보고/상속.증여/회사설립 해외소득.자산보고/투자이민상담(예약) 206-353-6002 조도현 미카엘	고객 평가 1위 Windermere Real Estate 206-833-7979	스킨 마사지, 경락, 점, 검버섯, 타투 G마트 2층(린우드) 425-525-9955
공간 디자인(Interspace Interior)	시애틀 교구 관할 천주교 묘지 (매장땅/납골당) 미리 구입 상담	Pearlshining Photo	퀀텟 용자/부동산
블라인드 시공설치 전문 임정옥 마르세리노 206-669-4922	홀리루드 / 겟세마니 박요안나 206-434-5670	알루미늄 페널 사진, 여권사진, 장수사진 반태성(바오로) 206-883-3080 Lynnwood H-Mart 내	퀀텟 모게지 & 유니버스 부동산 대표 토니 장 (안젤로) 206-719-3502
KCR MEDIA GROUP	24시간 한국방송 &TV	IRA/401(K)	김현숙 부동산
교차로 / 블루북 www.wowseattle.com 대표번호 425-712-1236	실시간 방송 11개 채널 KBS/MBC/SBS/케이블 방송 등 425-777-6667	U & T Financial 김용근(Glen) 바실리오 206-880-1190	Windermere Real Estate 주택/콘도전문 206-375-5959
황바로 바오로 CPA	리나 웰니스 클리닉	안영미 글라라 종합보험	이상휘(스테파노) 부동산
세금/회계/회사설립/감사대행 425-742-7675(린우드 대한부인회 옆) info@phcpallc.com	비만/호르몬 치료 비타민 주사 206-485-3112(최주연 리나)	메디케어/오바마케어 생명보험/ 자동차보험/사업체 보험 425-791-0638/253-778-3974	주택 전문 /John L.Scott 425-770-1212
동서 한의원	New York Life	State Farm(첼시 황보 보험)	블루밍 치과
425-773-7979	은퇴연금/상속계획/연금성보험/단기저축 IRA/401K/Rollover/학자금보험/통탄케어 김수현 (바울리노) 253-802-2550	자동차, 주택, 생명, 사업보험 22618 Hwy 99 ste. #113 Edmonds 425-329-8396 (부한마켓 옆)	임플란트, 교정, 보철 4215 198thst SW #205 Lynnwood. WA 윤성욱 가브리엘 425-775-1800
아틀라스 척추 의료원 14608 Hwy 99 #309 Lynnwood	강남 한식(구 린우드 한강) 장병돈(미카엘) 503-442-3690	메디아트 패밀리 클리닉	이재호 (베드로 치과)
교통사고 상해, 직장 상해 김진영 요안나 425-742-0332	냉면 - 감자탕 - 순두부 - 도시락 캐터링 - 김치/ 반찬 / 점심배달 19505 44 th Ave. W. Lynnwood	일반 내과, 부인과 진료 425-233-8254 (Bellevue)	임플란트, 레이저치과, 아동치과 206-362-2500 16535 5th Ave. NE Shoreline
정가네 반찬	황명심 데레사, CPA, CFP	굿닥터 카이로프랙틱	그린 리본 프로젝트
반찬, 케더링 전문 206-906-9789 206-372-6481	세금보고, 회계업무 425-373-0380 / 425-802-7999 SabrinaHwang@CPA.com	김병성(프란치스코) 425-775-7550 19514 64th AVE W Suite B Lynnwood	그림을 통해 나를 찾는 과정 여성들을 위한 특별한 수업 213-926-7030(Issaquah)
희망미디어(Hope Media)	New Haven Geriatric Psychiatry	핸디맨	Bridge Tax Services
홈페이지 제작/광고/행사/유튜브 촬영 & 편집/253-256-1854 Kwom.guhun@gmail.com	노인 정신과 206-657-4829 www.newhaven.care	페인트, 벽지, Hardwood Flooring 206-498-8164 임화식 레오	개인 및 자영업자 세무 회계 전문 CPA 김효진(릿타) 425-243-7423 www.bridge-taxservices.com
웅진 코웨이 USA	뉴 해남 식당	BanJi (Korean Speed Dating)	시애틀 폴락 (덕화명란, 간장게장, 시래기)
정수기, 청정기, 비데, 안마의자 렌탈 253-632-0498 토마스 조	11:00 AM~9:30 PM 매주 화요일 휴무 206-367-7843	425-999-1874 김현숙 헬레나 banjiseattle@gmail.com	425-534-9255 www.seattlepollock.com 4215 198th St. SW #204 Lynnwood

미사 시간 및 성사 안내

주일 미사	토요일-7:00(오후), 주일- 8:00(오전), 10:00(오전), 11:30(오전)-YG/주일학교, 5:30(오후)-청년미사
평일 미사	화 / 목 - 오후 7:00, 수 / 금 -오전 10:00
성사 안내	봉성체 : 목요일 (10/29/26) 유아세례 : 오후 3시 토요일 (10/17/26)

레오 14세 교황 성하의 2026년 제100차 전교 주일 담화 (2026년 10월 18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선교 사명으로 일치하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2026년 전교 주일은 비오 11세 교황께서 제정하신 이래 100주년을 맞이하는, 교회에 매우 뜻깊은 기념일입니다.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선교 사명으로 일치하여'를 이날의 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저는 회년에 이어 온 교회가 성령 안에서 기쁨과 열정으로 선교 여정을 계속해 나가도록 격려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마음, 공동체들의 화해, 그리고 관대함과 신뢰로 기꺼이 협력하려는 모든 이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선교 사명으로 일치하여 있음을 묵상하며, 교회 역사의 이 "새로운 선교 시대"에 "우리 안에 선교 소명의 불꽃을 되살리고" 복음화에 헌신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느님 은총의 인도와 영감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깁시다(선교 분야와 이주민들의 회년 미사 강론, 2025.10.5. 참조).

1.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들과 일치하는 선교 제자들

그리스도와 이루는 일치의 신비는 선교 사명의 핵심에 자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수난을 앞두고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요한 17,21). 이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간절한 바람뿐만 아니라 그분의 제자 공동체인 교회의 정체성도 드러납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바로, 삼위일체에서 비롯되고 삼위일체를 통하여 계속 유지되는 친교, 모든 인간의 형제애와 모든 피조물과 이루는 조화에 이바지하는 친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관행이나 사상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삶, 그리스도께서 성령 안에서 아들이신 아버지와 이루시는 그 관계에 동참하는 삶입니다. 이는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며 성삼위의 생명 안에 온전히 동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요한 15,4 참조). 이 일치가 믿는 이들의 상호 친교를 낳고 모든 선교 열매의 원천이 됩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 가르치

신 대로, 참으로 "친교는 선교의 원천이고 결실" (교황 권고 「평신도 그리스도인」[Christifideles Laici], 32항)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회의 첫째가는 선교 책임은 교회 구성원들의 영적 형제적 일치를 새롭게 하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상황에서 갈등, 양극화, 오해, 상호 불신을 마주합니다. 이러한 일이 심지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때 우리의 증언은 힘을 잃고 맙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 제자들에게 맡기신 복음화 사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화해를 이루고 친교를 열망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니케아 공의회 1700주년의 공동 기념에서 생겨나는 기회들에 힘입어 모든 그리스도교 교회와 함께 교회 일치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나 어느 것 못지않게 중요한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됨'이 우리의 시선을 언제나 주님께 고정하도록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주님께서 참으로 우리 삶과 공동체의 중심이 되시고 모든 말과 행동과 인간관계의 중심이 되시어 우리가 경탄하며 다음과 같이 고백하게 이끄실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갈라 2,20).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리고 성사의 은총에 힘입어, 우리는 교회의 살아 있는 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그 이후의 교황 교도권, 특히 프란치스코 교황의 가르침에서 제시된 근본 주제들을 다루도록 부름받고 있습니다. 사실, 바오로 성인의 말씀처럼, "우리가 선포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2코린 4,5)합니다. 이러한 까닭에, 저는 성 바오로 6세 교황의 다음과 같은 말씀을 되새겨 봅니다. "하느님의 아들 나자렛 예수님의 이름과 가르침, 그분의 생애와 약속, 그분의 나라와 신비를 선포하지 않고서는 참된 복음화란 있을 수 없습니다"(교황 권고 「현대의 복음 선교」[Evangelii Nuntiandi], 22항). 온 인류에게 다다르기 위한 진정한 복음화의 이 여정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하나 될수록, 그분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함께 더욱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선교 사명으로 일치하여 - 세상이 주님인 그리스도를 믿게 하소서

제자들의 일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선교 사명을 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점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러하여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십시오"(요한 17,21). 복음 선포는 바로, 화해를 이루고 형제애를 나누며 하나 된 공동체의 증언을 통하여 온전한 전달력을 지니게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파울로 만나 복자의 좌우명인 '전 세계의 회개를 위한 온 교회의 일치'를 되새겨 볼 만합니다. 이 좌우명은 1916년 교황청 전교 연맹의 설립에 영감을 준 사상을 간결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황청 전교 연맹의 설립 110주년을 맞이하여, 저는 그동안 사제와 축성 생활자와 평신도의 선교 정신을 복돋우고 양성하며 모든 복음화 노력의 일치를 증진하는 데에 헌신해 온 교황청 전교 연맹에 감사와 축복의 인사를 전합니다. 실제로 세례받은 사람은 그 누구도 선교 사명에서 제외되거나 이 사명에 무관심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 교회에 맡기신 이 위대한 일에 모든 사람이 저마다 자신의 고유한 소명과 삶의 여건에 따라 참여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거듭 일깨워 주신 대로, 복음 선포는 언제나 조화롭고 공동체적이며 시노드 정신이 깃든 행위입니다.

따라서 선교 사명으로 일치한다는 것은 친교의 영성과 선교 협력의 정신을 지키고 기른다는 의미입니다. 날마다 이러한 자세를 길러 주는 하느님 은총에 힘입어 우리는 형제자매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법을 점차 배워 나갑니다. 우리는 또한 모든 사람 안에 성령께서 불어넣으신 선을 기쁘게 인식하고, 다양성을 보화로 여기며, 서로의 짐을 함께 나누어 지고, 위에서 오는 일치를 추구하는 법을 배웁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이며 세례도 하나이고, 만물의 아버지이신 하느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만물 위에, 만물을 통하여, 만물 안에 계십니다"(에페 4,5-6). 그러하기에 참으로 우리는 하나의 사명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선교 제자직은 날마다 이러한 선교 협력과 친교의 영성으로 표현됩니다. 이 영성은 우리가 교회의 복음화 사명에 대한 보편적 전망을 되찾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예를 들어 “나는 바오로 편이다,” “나는 아폴로 편이다.”(1코린 1,10-12) 하고 저마다 내세우듯, 한 분이신 주님을 따르는 이들 가운데서도 나타나는 불협화음과 파벌 형성을 극복하도록 도와줍니다.

두말할 나위 없이, 선교 사명의 일치는 획일화가 아니라, 오히려 서로 다른 은사들이 같은 목적을 위하여 한데 모이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눈에 보이게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모든 이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지역 공동체들이 서로 협력할 때 그리고 같은 신앙 안에서 문화와 영성과 전례의 차이가 온전히 조화롭게 표현될 때, 복음화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저는 교회 안의 모든 단체가 선교 사명을 수행하는 교회의 친교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도록 그리고 선교 사명을 위하여 선교 사명 안에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구체적인 길들을 닦아 나가도록 격려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선교 협력에 헌신하는 교황청 전교 기구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페루에서 사목하는 동안 이러한 협력에 고마움을 느꼈던 경험이 있습니다. 교황청 전교기구, 곧 교황청 전교회, 교황청 어린이전교회, 교황청 베드로사도회, 교황청 전교연맹은 모든 연령대의 신자들의 선교 의식을 북돋우고 양성하며, 전 세계 공동체들을 연결하는 기도와 자선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황청 전교회의 설립자인 폴린 마리 자리코 복자가 200년 전에 ‘살아있는 목주 기도’를 시작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합니다. 또한 교황청 전교회의 제 안에 따라 비오 11세 교황께서 1926년에 ‘전교 주일’을 제정하셨다는 점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해마다 이 전교 주일에 모금된 헌금은 교황청 전교회가 교황을 대신하여 교회의 선교 사명에 필요한 다양한 곳을 지원하는 데에 쓰입니다. 그러므로 이 네 단체는 전체로서 그리고 각 단체의 고유한 특수성에 따라 여전히 온 교회를 위하여 소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들은 일치의 살아있는 표징이자 선교 사명을 수행하는 교회 친교의 살아있는 표징입니다. 모든 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황청 전교기구에 협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3. 사랑의 사명 - 하느님의 신실한 사랑을 선포하고 실천하며 나누기

일치가 선교 사명의 조건이라면, 사랑은 선교 사명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파견되어 선포하는 기쁜 소식은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과 삶으로 육화된, 하느님의 신실한 사랑에 대한 복음입니다.

제자들과 온 교회의 사명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곧, 사랑에서 비롯되고 사랑으로 살며 사랑으로 나아가는 사명입니다. 실제로 주님께서는 수난을 앞두고 아버지께 드리신 당신의 위대한 기도에서 제자들의 일치를 청하시고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기도를 마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저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요한 17,26).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그치는 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자 밖으로 나갔습니다(2코린 5,14 참조). 이와 마찬가지로, 수 세기 동안 수많은 그리스도인 순교자, 증거자, 선교사가 목숨을 바쳐 하느님의 이 사랑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이처럼 사랑의 영이신 성령의 이끄심으로 교회의 복음화 사명은 세상 끝 날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의 만민 선교사들에게 특별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들은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성인처럼 고향과 가족, 모든 안락함을 뒤로한 채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랑을 전하고자, 흔히 난관이나 빈곤, 끊임없는 분쟁에 시달리는 지역이나 문화적 차이가 큰 지역으로 나아갔습니다. 선교사들은 역경과 인간적 한계에도, 그리스도 자신과 그분의 복음이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보물임을 알기에 기쁨으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이 용감한 증인들이 필요하고, 교회 공동체에는 여전히 새로운 선교 성소가 필요합니다.

저는 남녀 선교사들에 대한 존경에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온 교회에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우리 삶의 증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선교지들을 위한 기부를 통하여, 선교사들과 함께 복음화 사명에 동참합니다.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의 말씀대로 “사랑이 사랑받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프란치스코 성인의 천상 탄일 800주년을 맞아 특별한 마음으로 그분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랑을 전하고자 했던 프란치스코

성인의 바람에서 영감을 얻읍시다. 성인 말씀대로,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신 분의 사랑은 한없이 사랑받아 마땅합니다”(바요레조의 성 보나벤투라, 『성 프란치스코의 생애』[The Life of Saint Francis], 제9장, 1, 『프란치스코 전집』[Fonti Francescane], 1161). 또한 죽음 이후에도 자신의 사명을 계속 이어 나가겠다고 선언한 아기 예수의 데레사 성녀의 열정에서도 영감을 길어 올립시다. “저는 천국에서도 현재 지상에서와 마찬가지로 같은 것을 바랄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사랑받으시게 하는 것입니다”(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 서한집 220, 벨리에르 아빠스에게 보낸 편지, 1897.2.24.).

우리 모두 이러한 증언들에서 영감을 받고 저마다 받은 소명과 선물에 따라, 언제나 사랑의 활동인 위대한 복음화 사명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합니다. 특별히 전교 주일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기도와 구체적인 지원은 하느님 사랑의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특히 가장 가난한 이들과 가장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전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가 전 세계 선교사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베풀어 주는 모든 도움에 대하여”(2025년 전교 주일 교황 영상 메시지, 2025.10.19.)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적 친교를 북돋우고자, 다음과 같은 짧은 기도와 더불어 여러분에게 저의 교황 강복을 보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일치와 화해를 가져다주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내리게 하소서. 교회의 모든 지체가 선교 사명으로 일치하고, 성령께 순종하며, 담대하게 복음을 증언하고, 모든 피조물을 향한 당신의 신실한 사랑을 선포하고 날마다 구체적으로 드러내게 하소서.

모든 남녀 선교사를 축복하시고 그들이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희망을 잃지 않도록 지켜 주소서!

선교의 모후이신 마리아님, 세상 곳곳에서 저희가 펼치는 복음화 활동에 함께하소서. 저희를 평화의 도구로 삼으시어, 온 세상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빛을 깨닫게 하소서. 아멘.

바티칸에서
2026년 1월 25일
연중 제3주일
성 바오로 사도의 회심 축일
레오 14세 교황